

**제2차 헬베틱 신앙고백서 1장 탐구: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Of the Holy Scripture Being the True Word of
God, Second Helvetic Confession, Chapter 1, B)¹⁾**

저자: 로날드 카멩가 (Ronald Cammenga, 개신개혁신학교 교의학 교수)
Translator: (Jae-Eun Park, Calvin Theological Seminary)

개혁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믿고 고백해야 할 진리는 성경이다. 제2차 헬베틱 신앙고백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보편적 교회 안에서, 구원 신앙에 관한 모든 종류의 완전한 진리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는 모든 것은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그 모든 것은 성경 안에서 가르쳐져야만 하고 성경은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관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이다. 성경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신자들을 구분시켜준다. 또한 성경을 진리로서 대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성경이 신적 영감 아래 기록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시켜준다. 제2차 헬베틱 신앙고백서 1장은 바로 성경에 관한 이야기다. 1장의 시작은 성경의 신적 영감과 권위, 또한 성경 자체의 충분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제2차 헬베틱 신앙고백서 1장은 성경과 설교의 관계를 설명해주기도 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적 조명은 성경의 외적 선포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로 성경에 대한 내적 조명을 받은 자가 곧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막 16:15). 도한 두아디라 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비로소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따르게 된다 (행 16:14). 그러므로 바울은 말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하나님은 사실 외적인 복음 선포 사역이 없어도 한 사람의 마음에 내적 조명을 허락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적, 외적 명령과 예들을 사용하여 사람의 마음에 교훈 하신다는 것이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오로지 성령의 “내적 조명”만을 인정하여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룹들이 있었다. 바로 “극단적 종교개혁자”라고 부를 수 있는 재세례파들이었다. 그들은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는 자는 굳이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내적 조명”과 외적으로 전해지는 설교 말씀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은 어느 종교개혁자들도 성령의 사역으로서 내적 조명을 거부한 이는

1) 개신개혁교회 (Protestant Reformed Churches)에서 발행하는 공식 매거진인 The Standard Bearer에 “Of the Holy Scripture Being the True Word of God”이란 제목으로 2015년 8월호에 실린 글을 번역 및 게재 허락을 받고 게재 합니다. 저작권은 The Standard Bearer와 저자에게 있습니다.

없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반대로 종교개혁자들은 성령의 내적 조명의 필수성에 대해서 역설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성경과 관계하여 많은 일들을 하신다. 성경 기록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영감). 또한 성령은 교회들로 하여금 무엇이 정경이고 무엇이 정경이 아닌지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다. 그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성경이 각국 언어로 번역되고 출판되는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딤후 3:15)를 알게 하기 위해 성령은 장구한 역사 아래서 성경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사역을 담당하신다. 성령의 역사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내적 조명하심이다. 성령의 내적 조명 아래서 성경을 읽는 자들은 자신들이 읽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한 것처럼, 성령의 내적 조명 사역은 성경 말씀에 새로운 것을 추가하거나 다른 말씀으로 바꾸는 사역은 아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 사역은 언제나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더 잘 이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역임과 동시에 우리를 진리에 더 가깝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성령의 내적 조명 사역은 복음 선포 같은 은혜의 방편들을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음 선포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성취되는 것을 도와준다.

제2차 헬베틱 신앙고백서는 이러한 사실을 “명령과 예들”로 가능하다고 언급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할 것에 대해 명령하셨다. 불링거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대위임령 맥락 하에서 설명한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제자들을 세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막 16:15). 그러므로 바울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면 한다 (롬 10:17).

바울은 또한 구원의 방편으로서 신실한 복음 선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러한 바울의 생각을 잘 대변해주는 책이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이야기는 복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잘 말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것이다 (행 16:14).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주권적으로 여실 때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행 16:14하)는 사실이다. 루디아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는 성령이 복음의 선포를 은혜의 방편으로 삼아 닫힌 마음 문을 여신다는 것,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신다는 것, 무지한 자를 일깨우신다는 것, 그리고 불신앙에 빠진 자에게 믿음을 소유케 하신다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복음 선포에 대한 “들음”을 내적 조명을 위한 방편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들음 그 자체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는 있다. 외적 사역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적 조명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복음을 아직 접하지 못한 엄마의 자궁에서 죽거나 갓난아이일 때 죽은 아이들이 바로 그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원칙은 있다. 바로 복음 선포의 수단을 통해서 성령은 선택받은 신자들을 조명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반드시 그 자신을 복음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이단들

제2차 헬베틱 신앙고백서 1장에 “이단들”이란 제목을 가진 내용이 나온다. “우리는 성경과 성령의 밀접한 관계를 거부하거나 혹은 성경의 일정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 그 자체를 왜곡시키는 아르테몬, 마니교, 발렌티누스파, 세르돈, 말시온파 같은 이단들을 배격한다.” 이러한 내용은 신앙고백서 전반에 걸쳐서 자주 등장한다. “이단들”이라는 제목뿐만 아니라 “분리주의자들” 혹은 “문제점들” 등으로도 표현된다. 혹은 특정 이름, “에피큐리오스” 라든지 “락탄시우스”로 표현되기도 한다. 개혁 신앙은 단순히 진리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 아니라 동시에 잘못된 점을 깨닫고 지적하는 부분 또한 포함된다. 복음은 이렇듯 늘 상반적인 개념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반성은 구약의 선지자들 뿐 만 아니라 신약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의 가르침에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단들”이란 제목으로 표현된 신앙고백서 1장은 특정 인물인 아르테몬, 세르돈이 등장 할 뿐 아니라, 동시에 마니교, 발렌티누스파, 말시온파 같은 그룹도 등장한다. 늘 그렇듯 특정 그룹에는 그 그룹이 생겨날 수 있게끔 토대를 닦은 특정 인물에 대한 찬양이 존재한다. 신약 교회가 늘 경계했던 초기 형태의 이단인 영지주의는 여러 이단들에서 쉽게 발견된다. 사도 요한의 글들 가운데서 영지주의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반발을 찾아볼 수 있다. 또 다른 형태의 이단들은 반 삼위일체적 가르침을 견지한다. 그들의 주장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부인되고 그리스도가 단순한 사람 중에 하나로 전락한다. 그 외에 많은 이단들은 절충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교적 철학 요소들과 기독교를 오묘하게 섞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기본적으로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견지한다.

이렇듯 다양한 이단들의 형태가 있지만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사상은 바로 성경에 대한 관점이다. 그들은 성경의 정경성을 거부하며 성경 자체를 왜곡시킨다. 세르돈과 말시온 학파 같은 경우엔 구약 성경을 거부하며, 신약 성경을 거부하는 이단들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르테몬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치는 성경 구절을 무시한다. 어떤 이단들은 정경으로 확정된 성경 리스트에 자신들만의 가르침을 첨가하기도 한다. 발렌티누스의 글인 『진리의 복음』을 성경 정경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

성경에 무엇을 더하든지 혹은 무엇을 빼든지 간에 이러한 행위는 솔라 스크립투라 (Sola Scriptura), 즉 “오직 성경”이라는 대원리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행위는 계시록 22:18-19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인간이 자신의 글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으로 두는 것만큼 교만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교만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몰론 성경이나 꾸란 같은 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크나큰 교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로서 특별함을 가진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성경만이 우리

삶과 신앙의 유일무이한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떤 것도 성경에서 제하여 버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뭔가를 성경에 추가시키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가감이 필요 없는 온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모든 개별적 신자들과 보편적 교회 전체에게 이미 충분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 제2차 헬베틱 신앙고백서 시작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해준다. “그리스도의 보편적 교회 안에서, 구원 신앙에 관한 모든 종류의 완전한 진리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외경

제2차 헬베틱 신앙고백서는 외경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리는 몇몇의 구약성경이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 외경으로 구분되었다는 사실을 굳이 숨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몇몇 외경은 교회에서 읽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외경들이 성경의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도성』 18권 38장에서 어거스틴은 말하길, ‘몇몇의 열왕기와 선지자의 글들이 언급되기는 한다,’ 그러나 동시에 언급하길 ‘그것들은 성경은 아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책들은 경건에 유익이 있다’라고 표현했다.”

종교개혁 신조에서 외경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놀랄 필요는 없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과 로마 카톨릭 교회 사이에서 첨예하게 논쟁되어온 주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서로 다투거나 하지는 않았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외경의 정경성에 대해 의심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외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정경과 동등하게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정은 달랐다. 그들의 특정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옹호하기 위해서 외경의 내용들이 필요할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벨직 신앙고백서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역시 외경의 정경성을 거부한다. 벨직 신앙고백서 6장은 말하길 “외경들은 우리가 그 책의 증거에서 신앙과 기독교의 어떤 요점을 확정할 만한 힘과 효과를 얻기에는 거리가 먼 책들이다. 더구나 이 외경들이 성경의 권위를 저하시킬 수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은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보통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며, 성경의 일부도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권위가 없고 다른 사람의 저서들보다 더 인정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종교개혁자들은 어떠한 교리도 혹은 어떠한 기독교적 삶의 연습도 외경에 근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천명한다. 불링거도 이 지점에 한해서는 어거스틴에게 호소한다. 많은 부분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어거스틴에 의존한다. 어거스틴의 가르침은 종교개혁이 어떠한 새롭고 참신한 운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오히려 어거스틴은 종교개혁이 추구하는 바는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가 지녔던 바로 그 진리와 같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성경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종교개혁자들은 특정 외경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벨직 신앙고백서 6장은 “이 모든 외경들은 성경의 책들과 일치하는 한 교회가 읽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교회 안에서의 제한적 사용 때문에 이러한 외경들은 때때로는 교회의 책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책들은 권위 있는 정경들과는 큰 차이를 가진다. 외경의 영감성을 거부하면서 종교개혁자들과 제2차 헬베틱 신앙고백서는 성경이 66권이라는 사실을 공표한다: 이러한 책들 안에서 “하나님은 교부들과 선지자들, 사도들, 또한 현재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